

선관위 “경선 관리위탁 어렵다” 통보 정당 대선준비 비상

본선거 준비 일정과 겹쳐 인력·정당성 확보 등 차질

조기대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정당의 후보경선 관리위탁을 맡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는 대통령 궐위시 60일 이내에 대선 본선거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곤란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각 당으로는 대선일정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선관위의 지원까지 받지 못하게 돼 경선관리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18일 “대선후보 경선을 치르려면 후보자등록 등 규정된 절차에만 75일 정도가 소요된다”며 “원래대로 12월에 대선을 치르면 상관이 없지만, 지금 각 당의 후보경선을 선관위가 맡게 되면 본선과 일정이 겹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 궐위선거는 (탄핵 등으로 궐위시) 60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각 당의 경선과 거의 겹치게 된다”며 “궐위선거 준비에 촉박하게 이뤄질 텐데 경선 위탁관리까지 선관위가 맡게 되면 본선거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선관위가 당연히 정당 활동을 지원해야 하지만, 이번에는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다”면서 “해당 부서에서 정당(민주당) 측과 논의를 계속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장 먼저 불통이 될 곳은 더불어민주당이다. 제1당으로 설 연휴 전에 후보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밝힌 민주당의 경우 당내 경선규칙 논의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선관

위로부터 ‘경선 관리위탁’이 어려운 쪽으로 결론이 내려질 경우 경선 준비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금태섭 전략기획위원장은 “선관위에서 이번엔 경선 위탁관리가 어렵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금 위원장은 “이번엔 대선이 언제일지 정해져 있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나면 갑자기 실시해야 해서 어렵다고 한 것”이라고 전했다.

금 위원장은 “법적으로는 경선관리를 우리가 하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떤 정당도 전국 경선을 벌일 만큼 인력이 없기 때문에 선관위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서 “대선을 이런 식으로 치르는 게 초유의 일인 만큼 선관위 답변을 가지고 논의를 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 위원장은 “각 기초단체 투표소를 하나씩만 설치해도 220여개인데 투표소당 열명씩 2000명이 넘게 투입된다. (선관위 관리 없이는) 동시 전국 투표가 어렵다”면서 “선관위에 관리를 일당 촉구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당내 경선이 곧 대통령 후보 경선이기 때문에 공정한 관리를 위해서는 선관위 지원을 받아야 한다. 선관위가 각 당에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면서 “새누리당은 일부 지원이라도 받아서 원만한 경선이 이뤄지도록 자체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정당 장제원 대변인은 “정당의 경선은 공공성이 가장 중요하다. 어렵더라도 선관위에서 후보 경선을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상황을 다시 알아보고 선관위에 진위를 파악해보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반기문 “광주는 한국 민주주의 원산지”

5·18묘지 참배·조선대 특강

“사드 갈등 외교로 해결”

‘임 행진곡’ 제창 논란

입장 표명 않고 묵묵부답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18일 “광주와 호남은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정착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시발점이 되는 곳으로, 민주주의의 원산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이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밝히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값진 희생을 통해 이룩한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나가야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반 전 총장은 5·18 기념식에서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금지 논란에 대한 질문과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민주주의가 퇴보했다는 지적도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다.

전날 김해 봉하마을과 진도 팽목항, 영암을 방문한 반 전 총장은 이날 오전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한 뒤 조선대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강연을 하는 등 젊은이들과의 소통 행보에도 나섰다.

그는 특강에서 “국민이 좌절하다 못해 분노하고 있다”며 자신이 이를 포용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광장의 민심”으로 대표되는 국민의 좌절과 분노는 대통령을 포함한 지도층 인사들이 다 책임져야 한다”면서 “그중에서도 특히 국가를 경영하는 위치에 계신 분들은 좀 더 포용적인 리더십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를 둘러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 전 총장은 또 “국민이 좌절하다 못해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지금 모두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며 “정치적이든 사회적이든 적폐를 도려내야 한다. 개혁해야 한다.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정치로 귀결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래서 제가 정권교체보다는 정

치교체를 해야 한다고 한 것”이라며 “정치교체가 (정권교체보다) 상위 개념이다. 이런 모든 걸 포함한다.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더이상 이런 일이 없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사드 배치와 관련, “중국 등과의 문제는 얼마든지 외교로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사드 문제가 상당히 정치적인 문

제가 됐고, 국민 의견이 갈라지는 데 대해 안타깝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하지만, 반 전 총장은 “지금 한반도 상황은 준전시 상태와 비슷한 상황이며, 사드 배치는 순수하게 방어용이며, 공격용이 아니다”면서 “경제, 사회 정책은 하다가 안되면 바꿀 수 있지만, 안보는 놓치면 끝난다”고 사드 배치 찬성 입장을 재차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수도권 유통기업 혜택 법안 재개정안 발의

국내로 복귀하는 해외 기업(유통기업)의 세제 혜택 범위를 수도권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세법)에 대한 광주를 비롯한 지방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광주일보 1월 6일·10일·12일 1면> 재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시 세제혜택 대상지역에서 수도권을 제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새누리당 임용수(밀양·의령·함안·장성)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됐다고 밝혔다.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국내 복귀 기업의 세액감면 대상지역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수도권

중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존권역을 추가했다.

이에 개정안은 지난 법 개정이 기업의 수도권 집중화와 규제완화로 이어질 수 있는 지적을 반영해 세액감면대상지역에 수도권을 제외했다.

임 의원은 “세액감면대상지역을 수도권으로 확대하면 유통기업이 수도권으로 몰릴 것이고 이는 갈수록 확대되는 수도권 과밀수요의 격차를 심화시킨다”며 “세액감면대상지역을 수도권 밖으로 한정해 수도권과밀억제와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려는 것”이라고 법안 재개정 취지를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경남신문=이종구 기자 jglee@



김은영의
‘그림 생각’

(172) 로코코

로코코(Rococo)는 18세기 초 프랑스에서 생겨난 예술형식으로 귀족과 부르주아의 취향을 반영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전 시대인 17세기 바로크(Baroque)가 절대 군주의 화려한 궁전에서 펼쳐져 호방하고 역동적이면서 남성적 양식을 과시한다면, 로코코는 새 시대의 사교적인 살롱의 등장과 함께 그 곳을 누볐던 귀족 부인들의 섬세하고 장식적인 여성 취향을 대변한다.

서양미술사에서는 이러한 로코코시대를 열었던 숨은 실력자로 루이 15세의 에

마담 폰파두르 지적 사교에 녹아든 문화융성

첩이자 당시 살롱 문화를 주도했던 마담 폰파두르(1721~1764)를 주목한다. 20여 년 간 루이 15세의 곁에서 권력을 나눴던 폰파두르 부인은 이로 인해 루이 15세가 국고를 낭비했다는 비난도 함께 받았고, 당시 건축가 조카가 장식예술가들에게 막대한 지원을 한 덕분에 프랑스 문화와 예술이 융성했다는 평가도 공존했다.

프랑스 왕실의 초상화가였던 모리스 캉탱 드 라투르(1704~1788)가 파스텔로 그린 ‘마담 폰파두르의 초상화’(1755년 작)는 악보를 손에 들고 단아하게 미소 짓고 있는 모습에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여인을 상상하게 한다. 문학과 예술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던 폰파두르 부인은 뛰어난 미모를 자랑하기도 해 라투르 뿐만 아니라 프랑스와 위베르 드루

에, 프랑스와 부세 등 당대 내로라하는 화가들의 모델이 되었다. 여러 화가들의 초상화에 등장하는 폰파두르 부인은 대부분 책이나 악보 등을 들고 있는데, 라투르의 작품에는 책상 위에 놓인 여러 권의 백과사전으로 한눈에도 화폭 속 주인공의 지적 취향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실제로도 매우 현명하고 지적이었던 폰파두르 부인은 그녀의 살롱에 자주 찾아왔던 볼테르와 디드로 등 철학자들이 백과사전을 만들도록 적극 후원하기도 해서 ‘백과사전파’를 풍요롭게 했다.

요즘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문화융성’과 다르게 폰파두르 부인의 지적 사교가 일조한 당시의 문화융성은 작품 속 배경으로 그 흔적을 남기고 있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 박사>



‘마담 폰파두르의 초상화’(1755년 작)

고흥에는 건강한 맛이 있다.

깨끗한 바다, 건강한 토양, 정직한 사람들의 정성이 모여져 고흥에서는 365일 건강한 먹거리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고흥청정마켓
www.goheungmarket.com
온라인에서도 고흥농수축산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고흥군 농수축산물 전시판매장
고흥군 만남의 광장 농수축산물 전시판매장에서 안전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고흥군에서 생산되는 건강한 먹거리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분들을 위한 명절 선물세트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흥군 동강면 고흥로 4797 TEL. 061)830-5842
운영시간 09:00~20:30(연중무휴)